

학창의(鶴氅衣) 연구

박 선희* · 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Hakchangui*, the Scholar's Robe with Dark Trim

Sun Hee Park* · Na Young Ho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0. 10. 20, 심사(수정)일: 2010. 11. 15, 게재 확정일: 2010. 12. 14)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Hakchangui* worn in Joseon around the 18th century and furthe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inese *Hakchang* and Joseon *Hakchangui*, as well as to figure out spread factors of *Hakchangui*. The study proceeded as follows: 1)The *Hakchangui* was examined those appearing in the collections of works and paintings after the 17th century. 2)The Zhuge Liang's *Hakchang* was researched through *Romance of Three Kingdoms*, paintings and sculptures. 3)The images of *Hakchangui* wearers described in literature we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the symbolic meanings of *Hakchangui* in Joseon those days. Those research efforts revealed four findings: 1)In many cases, the *Hakchangui* worn in Joseon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has side slits, but no back slit. It's both sides of the center front were parallel, not overlapped. 2)*Hakchangui* was strange to the Joseon people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but started to permeate among those who liked classic style. 3)The aspects of Zhuge Liang were standardized in the combination of 'Yungeon, *Hakchang*, a feather fan and a wagon' in *Romance of Three Kingdoms*. 4)Zhuge Liang was considered as a symbol of wisdom and loyalty and had an image of a Taoist hermit who transcended the mundane world.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findings led to two following conclusions: 1)In Joseon the Chinese *Hakchang* was introduced to people who had exchanges with Chinese or liked classic style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and gradually spread by their advocates. 2)The *Hakchangui* must have been increasingly worn by more Joseon scholars because they started to borrow the image of Zhuge Liang driven by the popularity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tendency of reinforcing Zhuge Liang's image as a loyal subject by the kings of Joseon.

Key words: *Hakchangui*(鶴氅衣), Scholar's Robe(士人服), *Tongshinsa*(通信使), *Zhuge Liang*(諸葛亮), 18th century(18세기)

I. 서론

조선 후기 조선에서 외국에 파견한 외교사절은 청(淸)에 간 연행사(燕行使)와 일본으로 간 통신사(通使)가 대표적이다. 사신으로 갔던 이들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각국의 수도에 입성하거나 국서를 전달할 때, 공식 연회에 참석할 때 등의 공무에는 관복(官服)을 착용하나 평상시에는 편복(便服)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영조 39(1763)년과 순조 11(1811)년에 파견된 사신의 편복으로 와룡관(臥龍冠)에 학창의(鶴氅衣)를 갖춘 차림이 나타난다. 그리고 영조 39(1763)년 종사관 서기로 일본에 간 김인겸이 쓴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에 무진(1748)년에 통신사로 파견되었던 문사(文士)에게 물어 전례대로 학창의, 정자관을 지었다¹⁾고 한 것으로 보아 1748년 사행에서도 학창의 착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숙종 때 역관 김지남(金指南)이 아들 경문(慶門)과 함께 편찬한 『통문관지(通文館志)』에는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관계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교린(交隣) 항목 중 '일본 땅에서의 연향(宴享)' 부분에 관복을 착용하고 공식 연회에 참여한 뒤, 편복으로 바꾸어 입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나²⁾. 편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순조 8(1808)년 호조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沈象奎)가 왕명을 받아 지은 『만기요람(萬機要覽)』의 재용편(財用編) 중 '신사(信使)의 복착(服着)' 부분에는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승선할 때와 관(館)에 머무를 때 와룡관에 학창의를 입고 백우선(白羽扇) 등을 갖추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

이러한 학창의, 와룡관, 우선(羽扇)으로 구성된 차림새의 대표적인 예는 제갈량(諸葛亮)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청(淸)에 다녀온 사신들은 북경(北京) 근교 삼충사(三忠祠)를 방문하여 본 제갈량의 모습에 대해 '제갈 무후는 와룡관을 쓰고 학창(鶴氅)을 입었으며 손에는 우선을 들고 있었다'⁴⁾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서유구(徐有集, 1764-1845)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학창의에 대

해 제갈무후(諸葛武侯)가 입었던 것⁵⁾이라 소개하고 있어, 18세기 말 19세기 초 당시 조선사회에서 학창의를 제갈량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칭과 차림새의 공통점을 볼 때, 제갈량으로 대표되는 중국 학창과 조선 학창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창의에 대한 견해는 19세기경 초상화에 나타난 모습과 전세유물(傳世遺物)을 바탕으로, 대창의에 검은 천으로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선을 두른 것⁶⁾으로 보아, 흰색 또는 청색 옷에 검은색 선이 깃, 쇠, 도련, 소맷부리, 고름, 옆트임, 뒤티임에 둘러 대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성호사설(星湖僊說)』에 보면 학창의 같은 옷 종류가 도가(道家)의 상복인데 두 옷깃을 가리우지 않고 임백(任脉) 있는 부분에 대한 고리 구슬로 위아래를 거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⁷⁾, 18세기 학창의의 형태가 19세기와 달리 맞깃형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학창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윤미화⁸⁾, 정희정⁹⁾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창의(氅衣)의 일종으로 연구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민주¹⁰⁾의 연구에서 옥소(玉所) 권섭(權燮)의 문집 『옥소고(玉所稿)』에 표현된 학창의를 소개하고, 저자의 도학자적 성격과 연관하여 착용 동기 등을 설명함으로써 18세기 학창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과 이은주¹¹⁾의 연구에서 이유원이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학창의와 비슷하다고 언급한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의 심의(深衣) 기록을 비롯해, 김원택(金元澤, 1683-1766)묘 출토복식, 『옥소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7-18세기 학창의 제도가 현재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 눈에 띈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통신사 사신의 복식으로 제시된 와룡관·학창의 차림에 주목하여, 당시 학창의의 실체 및 학창의를 통해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17세기 이후 문집과 통신사 관련 자료, 회화 등에 나타난 학창의를 중심으로 18세기 전후 조

선에서 착용된 학창의의 형태를 알아본다. 둘째,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¹²⁾ 및 관련 자료에 표현된 제갈량의 학창을 알아본다. 셋째, 문헌에 묘사된 학창/학창의가 가지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 이 복식이 도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II. 17-18세기 조선의 학창/학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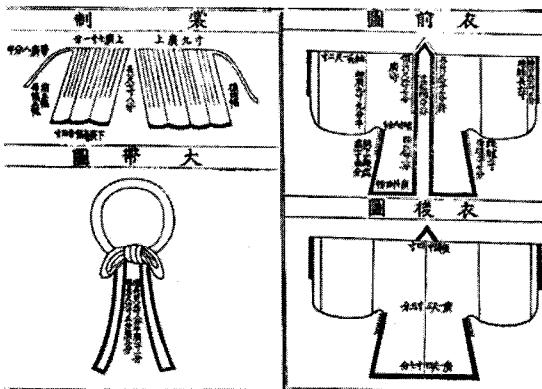
1. 17-18세기 조선 문집과 회화에 나타난 학창/학창의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집 『송자대전(宋子大全)』 중 최신(崔愬)¹³⁾의 기록을 보면 '선생'은 평소 도포(道袍)나 혹은 심의를 입고 만년에는 '학창의'를 많이 입었는데, 학창의를 야복(野服)이라 하고 초야(草野)에 있을 때 적합하기에 입는다고 했다 한다. 최신은 학창의를 수박처럼 푸른 빛[青如西瓜色]인데, 옷깃은 등글고[團其領] 소매는 크며, 뒤는 갈라지고[拆其後] 도련[緣]은 검은데, 옷자락은 안팎 없이 전면에 합금(合襟)되었으므로 좌·우의 옷깃에 암·수의 단추[紐] 몇 개가 있고 입으면 허리띠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⁴⁾ 또한, 송시열의 수제자로 알려진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역시 그의 문집인 『한수재집(寒水齋集)』 중 이군희(李君晦)에게 답하는 글에서 학창을 언급하고 있다. '학창'에는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큰 것은 포(袍)와 같고 작은 것은 패자(掛子)와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선생'께서 입으셨던 것은 포의 제도와 같은 것으로, 오래되어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나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들은 것 같다 하고, 잠곡 상공(潛谷相公) 김육(金墮)과 성천(星川) 이감사장(李監司丈)이 크게 만든 것을 입었다고 소개하고 있다.¹⁵⁾

이 두 글에서 '선생'은 송시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이 착용한 것에 대해 『송자대전』에는 '학창의'로, 『한수재집』에는 '학창'으로 기록하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송시열과 김육 등을 포 형태의 '큰 학창/학창의'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것일 가능성 역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¹⁶⁾은 『송자대전』에 실린 「야복도설(野服圖說)」이다. 이는 송시열이 만년에 야복으로 소개하며 즐겨 착용한 학창의를 나타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야복은 의(衣), 상(裳), 대대(大帶)로 구성되며, 백방사주(白方絲紬) 혹은 백주(白紬)로 만들고 흑견(黑絹)으로 짓, 소맷부리 등에 선을 두른다. 깃은 방령(方領)이며, 겨드랑이 아래가 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뒷면의 모습을 볼 때 뒷중심선에는 트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푸른 빛에 옷깃이 등글고, 뒤가 갈라졌으며, 허리띠가 없다는 최신의 기록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야복에 띠를 두르는 경우에 대한 기록을 『성호사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익은 학창은 도가(道家)의 상복(常服)으로 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주자(朱子)가 만년에 야복을 입고 손님을 접견하면서 웃옷[上衣]·아래 치마[下裳]와 큰 띠[大帶]·모난 신의 편리한 점은 띠를 매면 예(禮)가 될 수 있고 띠를 풀면 편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 한 일화를 소개하였다.¹⁷⁾ 이것으로 볼 때 원래 학창은 의, 상, 대대로 구성되나 편복으로 사용될 때에는 띠를 띠지 않은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¹⁸⁾ 「송하한유도(松下閑遊圖)」는 잠곡 김육이 1637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인 호병(胡炳)이 그린 초상이다. 이 그림 우측 상단에는 신미년(1751) 2월 영조가 지은 어제찬(御製贊)이 있는데, '윤건에 학창 입으시고 細巾鶴氅/솔바람에 서 계신 분 倚立松風'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 모습은 『잠곡유고(潛谷遺稿)』에 실린 오언 절구(五言絕句) '초상을 그린 소축(小軸)에 제(題)하다[題寫眞小軸]'의 내용 '홀로 선 큰 소나무 아래 獨立長松下/ 학창에 검은 건을 쓴 노인이 있다 烏巾鶴氅翁'¹⁹⁾와 같아, 그림 속 주인공이 착용한 포가 '학창'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위의 『한수재집』 내용으로 미루어 이것이 당시 '큰 학창'의 착용모습에 해당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²⁰⁾ 「시서영정(市西影幀)」은 시서거사(市西居士) 김선(金璇, 1568~1642)의 영정이다. 인조 4(1626)년 화가 이응하가 그린 것을 후대에 원화의 상태를 그대로 옮겨 그린 것으로 보는데, 김육 초상과 연대가 비슷하며 복식의 형태가 유사하여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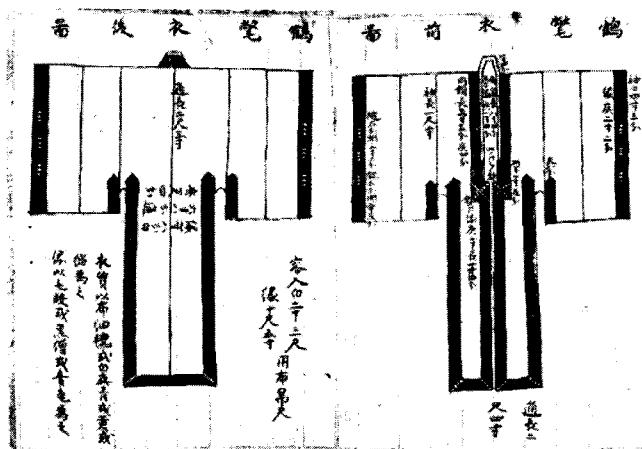
〈그림 1〉 야복도설, 송자대전V, 1993, p. 484.



〈그림 2〉 胡炳,
송하한유도(부분),
잠곡김육문중소장고문서,
2007, p. 9.



〈그림 3〉 이응하,
시서영정, 문화재도록,
1998, p. 232.



〈그림 4〉 학창의, 옥소고9, 2007, pp. 291-292.



〈그림 5〉 이왕치, 옥소 권섭
영정, 문화재대관V,
2003, p. 461.

학창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초상에서는 작은 고름으로 앞을 여미고 가슴에는 띠를 두른 모습을 볼 수 있어, 『송자대전』과 『성호사설』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학창에 띠를 둘러 착용하는 경우의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권상하의 조카 옥소 권섭(1671-1759)은 문집 『옥소고』에서 학창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창의는 도가의 옷이다. 그 제도가 오래되어 엄중

(嚴重)하지 않다. 넓은 소매와 좁은 소매가 있고, 소매가 없는 것과 소매가 있는 것이 있다. 청색, 백색, 황색, 흑색 바탕에 연(緣)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다. 연은 검은색과 청색이 있어 그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옷은 곧게 잘라 늘어뜨렸으며 앞이 길고 뒤가 짧다. 또 대를 묶지 않는 것이 불변이다.²¹⁾

여기에는 덧붙여 〈그림 4〉²²⁾와 같이 학창의의 제도(製圖)를 싣고 있다. 그리고 『규합총서(閨閣叢書)』에는 학창의에 대한 제작법이나 치수는 실려 있지 않

으나, 당시 학창의의 만들새에 대해 방령이 마주 대하여 양 깃[襟]이 서로 덮이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있어²³⁾, 「한수재집」에서 송시열 학창의 경우 중국에서 제작하여 가지고 온 가능성은 제시했던 것에 비해,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국내에서 학창의를 지어 입는 사례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옥소고』에 실린 학창의 깃은 원삼 또는 사규삼의 깃에 가까운 모습인데 깃머리 부분이 각이 져 있으며, 여밈이 없는 맞깃 형태이다. 동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추나 고름 등은 보이지 않고, 옆트임은 있으나 뒤티임은 없다. 이에 비해 <그림 5>²⁴⁾ 경종 4(1724)년 도화서 화원 이왕치(李王治)가 그린 권섭 초상에 표현된 복식은 깃이 방령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맞깃에 단추로 여미고 있어 『옥소고』에 소개된 학창의와 만들새에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역시 학창의라고 생각된다.

『홍재전서(弘齋全書)』현릉원지(顯隆園誌)에는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²⁵⁾가 평상시 와룡관에 학창의를 착용하였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그는 창의를 짊어하였다 하는데, 그 이유는 창의가 삼면이 막혀 있고 뒤티만 터져 있어 그 모양이 음(陰)에 속하고 중국은 양(陽), 오랑캐[夷狄]는 음에 속하므로, 창의를 착용하는 것을 오랑캐와의 교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원폐의(圓袂衣)도 짊어한다 하였는데, 원폐의는 앞의 두 폭이 겹쳐지고 뒤에는 한 폭이 끌리게 되어 있어 이 역시 남쪽을 향하고 북쪽을 등지는 뜻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상시에는 사마광(司馬光)의 심의 제도를 본뜬 학창의를 착용하였다 한다.²⁶⁾ 여기서 학창의를 뒤티임이 있는 창의와는 다른 형태의 복식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창의가 뒤가 트여 음에 속하므로 짊어한 반면 학창의를 착용하였다 한 것으로 보아 사도세자가 착용한 학창의는 뒤티임이 없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원폐의 앞의 두 폭이 겹쳐졌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사도세자가 착용한 학창의는 『송자대전』 등에 나타난 학창의와 마찬가지로 앞자락이 겹쳐지지 않는, 맞깃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17~18세기 학창/학창의에 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집과 회화 자료를 통해 17, 18세기에 걸쳐 학창/학창의를 착용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학창/학창의는 사대부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암집(燕巖集)』,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 『과정록(過庭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암집』에서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영남고을 성주(城主)로 부임했을 때, 비를 기원하는 재(齋)를 지내는 축관(祝官)인 유처일(劉處一)이 입은 의복이 '예스럽고 기이해 보여[古奇]' 그 옷이 무엇인지 물었다. 유처일은 '학창의'라고 답하고, 같은 고장의 임갈천(林葛川)과 노옥계(盧玉溪) 등이 착용하던 제도라고 하였다. 연암은 그 옷에 대해 옷깃은 모나고 양 셈은 곧으며, 흰 바탕에 '준(準)'이라 발음하는 검은 선[純]을 들렸으며, 세 자락이 옆으로 터지고 양 옷깃이 맞닿아서 몹시 짐잖아 보였다고 묘사하였다. 연암은 창의를 관리들의 연복(燕服)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유처일은 연암이 입은 옷을 창의라 부른다는 것을 듣고 창(擎)이란 학의 날개이고 본래 의복에 모두 검은 선을 들렸으므로 창의라 이름 지은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선을 두르지 않은 창의는 명칭과 실상이 다른 것이라 하고 창의의 뒤가 트인 것 [擎衣之坼後]도 비판하고 있다.²⁷⁾ 당시 연암은 창의를 입고 있었으나 학창의를 보고 '기이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학창의의 형태는 낯선 모습이므로, 창의와 학창의는 외형이 달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과정록』은 연암의 아들인 박종채(朴宗采)가 지은 것으로, 위의 이야기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옛날에 갈천 임훈과 옥계 노진이 주자가 입던 평상복을 본떠 흰 옷에 검은 가선을 두른 옷을 입고 지냈는데, 안의의 어진 선비 유처일이 그 제도를 따랐다. 아버지는 이 옷의 예스럽고 아담함을 좋아하시어 하풍죽로당(荷風竹露堂)에 계실 때 더러 평상복으로 이 옷을 입으셨다'하는 것이 그것이다. 박지원이 유처일을 만난 후 그의 복식을 보고 자신도 학창의를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옷의 수령들이나 안의에 들른 사람들은 모두 연암의 이러한 옷차림을 몹시 해괴하게 여겨 눈이 휘둥그레져서 오랑

캐의 제도인지 물었으며, 심지어 이웃 고을 수령은 연암이 오랑캐옷을 입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소문을 내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송원(松園) 김이도(金履度, 1750-1813)는 가선을 두른 옷은 오랑캐의 옷이 아니므로, 검은색 가선을 두른 옷을 입는 연암은 중화의 제도로 오랑캐의 제도를 바꾼 것이라 변호하였다.²⁸⁾

이 뿐 아니라 학창의를 입어서 곤욕을 치른 조연구(趙衍龜)의 일화가 『청장관전서』에 소개되어 있다. 학문이 넓고 옛것을 좋아한 분인데, 학창의를 입고 수양산성(首陽山城)을 유람하던 중, 성장(城將)이 이를 괴상한 옷이라 여겨 결박하려는 것을 겨우 모면하였으며, 이후 옛것에 집착하여 세속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다.²⁹⁾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 보면 17, 18세기 창의에는 선을 두르지 않고 뒤티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재전서』와 『연암집』에 기록된 사도세자, 연암, 유처일의 학창의와 창의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보아 두 복식의 차이점은 단지 가선이나 뒤티임이 있고 없는 차이만이 아니며, 학창의와 창의의

외형이 크게 달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 18세기 학창/학창의는 깃의 모양이 직선형 혹은 방령이고 앞에서 좌우 자락이 겹치지 않는 맞깃 형태이며, 깃머리 부분에 단추나 작은 고름을 달아 여미거나 여밈 수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소매는 넓거나 좁거나 없는 등 다양하며, 옆트임이 있으며 뒤티임은 없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색상은 흰색, 푸른색, 황색, 검은색 등 다양하며 선의 색도 검은색과 푸른색이 나타났다. 대는 떠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창의는 당시 사대부 계층에게도 낯선 것으로 착용자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교류가 있던 학자 등을 중심으로 착용되었고, 학창의를 착용했던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양상 또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7, 18세기 조선 문집 및 회화에 나타난 학창/학창의의 모습을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17~18세기 문집 및 초상화에 나타난 학창의 분석

| 출처 | 깃모양 | 앞여밈 | 소매 | 트임 | 여밈수단 | 색 | 기타, 특이사항 |
|--------------|------------------|------------|------------------------|----------------------|------------------|---------------------|----------------------------|
| 송자대전 崔愬錄 | 등글다團 | 맞깃 | 큰소매 | 뒤티임 있음 | 단추 있음 대(帶) 없음 | 푸른색 + 검은색 연(緣) | - |
| 송자대전 野服圖說 | 직선형이나 방령으로 설명 | 맞깃 | 큰소매 | 옆트임 있음 뒤티임 없음 | 단추 없음 대 있음 | 흰색 + 검은색 연 | - |
| 한수재집 | - | - | - | - | - | - | -큰 것袍 작은 것掛子 -중국 제작설 |
| 김육 초상 | 직선형 | 맞깃 | 큰소매 | 옆트임 있음 뒤티임 확인불가 | 단추 있음 대 없음 | 흰색 +검은색 연 | - |
| 김선 초상 | 직선형 | 맞깃 | 큰소매 | 옆트임 확인불가 뒤티임 확인불가 | 고름 있음 대 있음 | 흰색 +청색 연 | -대(帶) 착용모습 |
| 옥소고 | 방령 또는 원삼깃 형태 | 맞깃 | 넓은 것/ 좁은 것/ 없는 것 | 옆트임 있음 뒤티임 없음 | 대 없음 | 청/백/황/흑색 +청/흑색 연 | -앞이 길고 뒤가 짧음 -동정 있음 |
| 권섭 영정 | 방령 | 맞깃 | - | - | 단추 있음 대 확인 불가 | 흰색 +검은색 연 | - |
| 홍재전서 | - | 맞깃으로 추정 | - | 뒤티임 없는 것으로 추정 | - | - | - |
| 연암집 | 방령 | 맞깃 | - | 옆트임 있음 뒤티임 없음 | - | 흰색 + 검은 선 | - |

III. 제갈량의 학창

1. 제갈량과 『삼국지연의』

제갈량(181-234)은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인물로, 자(字)가 공명(孔明)이며 와룡(臥龍)이라 불린 촉한(蜀漢)의 정치가이자 군사가이다. 유비(劉備)가 삼고초려(三顧草廬)하여 그를 초빙한 뒤 유비의 모사(謀士)가 되었고, 촉한이 건립된 이후 승상(丞相)이 되었으며, 유비의 아들 유선(劉禪)이 즉위한 후 무향후(武鄉侯)에 봉해졌다.³⁰⁾

『삼국지』는 진(晉)의 학자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위(魏)·촉(蜀)·오(吳) 3국의 정사(正史)이다. 이후 중국인들에게 흥미 있는 이야기로 구전된 삼국의 역사가 책으로 엮인 것이 원나라 지치연간(至治年間)에 그림을 붙여 간행된 『전상삼국지평화(全相三國志平話)』이다. 원(元)-명(明) 교체기에 나관중(羅貫中, 1330?-1400)은 진수의 『삼국지』와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을 모아 장희소설(章回小說)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삼국지연의』로 불리는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를 편찬하였다. 『삼국지연의』는 유비, 관우(關羽), 장비(張飛) 등 세 인물의 무용(武勇)과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지모(智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날 원본(原本)은 전해지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판본(版本)은 명(明) 가정제(嘉靖帝) 때인 1522년에 간행된 '가정본(嘉靖本)'으로 '홍치본(弘治本)', '나본(羅本)'으로도 불린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많은 속본(俗本)들이 나왔는데, 다른 판본을 암도하고 정본(定本)이 된 것은 청 강희제(康熙帝) 때인 강희 18(1679)년에 모종강(毛宗岡) 부자(父子)가 촉한정통론(蜀漢正統論)을 기초로 재구성한 '모본(毛本)'이다.

『삼국지연의』는 16세기 초 조선에 전해져 16세기 중엽 명종 때 국내에서 원문(原文)으로 간행되고, 인조, 숙종 때에도 출간되는 등 크게 유행하였다.³¹⁾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은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삼국지연의』가 임진(壬辰) 이후에 우리나라에 성행하여 부녀자나 어린이들까지 모두 외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언급하였다. 그리고 선비

들이 사서(史書)를 읽지 않고 『삼국지연의』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 『삼국지연의』의 고사는 과거 시험에 인용할 정도이나 정사 『삼국지』의 내용은 오히려 의심하는 지경이라며 우려하고 있어³²⁾ 당시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삼국지연의』가 대단히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모본을 바탕으로 한 『삼국지연의』³³⁾를 분석한 결과 학창³⁴⁾은 13장면에서 나타났다. 그 중 의술이 뛰어난 우길(于吉)이 학창을 입고 여장(黎杖)을 짚은 것으로 묘사된 것³⁵⁾을 제외하면, 12장면의 학창은 모두 공명, 즉 제갈량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명은 유비와 처음 만나는 날, 낮잠을 자다 일어나 유비와 만나기 위해 학창으로 갈아입고 윤건을 쓰고 등장한다.³⁶⁾ 이후 이 차림새는 공명의 상징과도 같이 나타난다. 공명은 원귀(冤鬼)를 달래기 위해 사람머리 대신 만두로 제사를 지낼 때 금관(金冠)을 쓴 것³⁷⁾과 사마의를 속이기 위하여 천신(天神), 신병(神兵)과 같은 분위기로 위장을 했을 때 잠관(簪冠)을 썼다고 표현된 경우³⁸⁾를 제외하면, 항상 윤건을 쓰고 학창을 입고 우선(羽扇)을 든 모습으로 수레를 타고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³⁹⁾ 이렇게 '윤건-학창-우선-수레'의 조합으로 정형화된 모습은 적들에게도 각인되어 공명의 사망 후 마치 공명이 살아있는 듯 위장할 때도 사용되고 있으며⁴⁰⁾, 공명의 묘에 제사를 드린 종회의 꿈에 공명이 나타날 때도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다.⁴¹⁾

이러한 모습에 대해 이전원 등⁴²⁾은 연의에 등장하는 제갈량이 항상 머리에 푸른 실로 만든 두건을 쓰고, 몸에 학창의를 걸치고, 손에 흰 깃털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어 마치 표표히 거니는 신선과 같은 모습이라 평하며, 나관중이 제갈량을 이러한 옷차림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모습이 나관중 당시의 명사(名士)의 풍모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제갈량이 손에 든 것은 원래 한말에서 남북조에 걸쳐 명사의 차림으로 통용되던 모선(毛扇, 麋尾)⁴³⁾으로 명사와 유장(儒將)은 이것으로 풍격을 나타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선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나관중이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백우선을 지닌 것으로 설정한 것은 그가 지혜의 집합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를 신선처럼 초월한 존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상화한 것이라 평하였다. 실제로 정사『삼국지』⁴⁴⁾의 제갈량전에는 공명의 복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元)나라 중엽 발간된 『지치신간전상평화삼국지(至治新刊全相平話三國志)』⁴⁵⁾에서도 '삼고초려', '죽은 공명이 산 중달 쫓아났다' 등 고사에 공명은 학창의·우선 차림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공명의 복식 관련 묘사로는 적벽대전 때 기풍제를 지내는 장면에서 '황의(黃衣)'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윤건-학창-우선'으로 상징화되는 공명의 모습은 나관중이 당시 사대부의 복식을 반영하여 설정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회화 및 조소(彫塑)에 나타나는 제갈량의 학창

제갈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삼국지』, 『삼국지연의』 등 문헌에 나타난 서술 외에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에 남아있는 제갈량의 상(像), 『삼국지연의』에 실린 삽화, 『삼국지』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회화 등 여러 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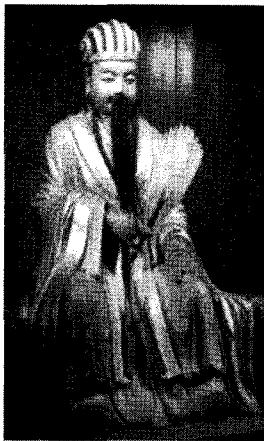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은 무후사(武侯祠)라고 하며, 중국 각지에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유비의 능과 함께 있는 사천성 성도(成都: 청두) 무후사이다. 223년 유비의 능(陵)으로 건설된 이후 공명의 사당이 함께 세워진 곳인데, 현재 건물은 청 건희 11(1672)년 중건된 것이다. 이곳에는 중건 당시 만든 공명의 소상 〈그림 6〉⁴⁶⁾이 있다. 이 상은 『삼국지연의』에 묘사된 공명의 모습과 같이 윤건에 학창을 입고, 우선을 든 모습이다. 학창의 모습은 깃이 곧은 직선형이며, 앞이 겹치지 않는 맞깃이다. 깃머리 부분에 단추와 같은 여밈 수단이 있고 허리에 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소매가 넓게 표현되었다.

〈그림 7〉⁴⁷⁾은 중국 명대 말기 삽화본이 유행하던 시기에 나타난 책들 중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삼국지통속연의』주왈교본(周曰校本) 삽화 중 하나로⁴⁸⁾. 공명이 융종을 찾아온 유비에게 지도를 보이며 천하삼분의 계책을 말하는 장면이다. 윤건에 학창을 입은 모습이며, 학창은 앞이 겹치지 않는 형태로 깃·소맷부리·도련 등에 선을 들렸다.

〈그림 8〉⁴⁹⁾은 조선시대 유행했던 83종의 중국 소설을 나열하고 그 중 일부 소설의 삽화 128쪽을 실은 화첩『중국역사회모본[支那歷史繪模本]』 중 『삼국지연의』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공명의 모습이며, 〈그림 9〉⁵⁰⁾는 국가에서 건립하고 의례를 주관한 동관왕묘(東關王廟)에 소장되어있던 궁중화풍의 「삼국지도(三國志圖)」 중 공명의 모습이다. 두 그림 모두 공명이 여러 유자(儒者)들과 설전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윤건을 쓰고 학창을 입은 모습이며, 학창은 역시 곧은 깃에 앞이 겹치지 않고 깃머리 부분에 있는 고름 또는 단추 등으로 여미고 있다. 깃·소맷부리·도련 등에 선을 두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⁵¹⁾은 숙종의 찬문이 있는 「제갈무후도」이다. 숙종이 숙종 21(1695)년 3월 비망기를 내려 평안도 영유(永柔)에 있는 제갈량의 사당인 와룡사(臥龍祠)에 남송의 충신 악무목(岳武穆)을 합향할 것을 명하며⁵²⁾, 이 그림을 그리게 하고 찬문을 지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제갈량의 실제 모습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그 모습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상징적 초상화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된다.⁵³⁾ 여기에서 공명은 윤건을 쓰고 학창을 입고 있으며, 옆에 서 있는 시동이 우선을 들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삼국지연의』에 표현된 모습과 일치한다. 학창은 깃이 곧은 직선형이며, 앞이 겹치지 않는 맞깃이다. 깃머리 부분에 단추와 같은 여밈 수단이 있고 허리에 띠를 띠지 않았으며 소매가 넓다. 깃·도련·소맷부리·앞중심에 짙은 남색 선을 두른 옅은 옥색 포의 모습이며, 옆선에 트임이 표현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갈량의 학창은 〈그림 1〉 『송자대전』의 「야복도설」이나 〈그림 2〉 『송하한유도』, 〈그림 3〉 『시서영정』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따라서 17세기 전반 조선에서 착용된 학창, 학창의는 제갈량의 학창과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諸葛亮塑像, 成都武侯祠,
www.wuhouci.net.cn



〈그림 7〉 三國志通俗演義
周曰校本 중
定三分魚出茅廬(부분),
삼국지, 그림으로 만나다,
2010, p. 164.



〈그림 8〉
와룡설전군유(부분),
支那歷史繪模本, 편년미상,
p. 40.



〈그림 9〉 삼국지도 중
와룡선생설전군유(부분), 우리의
삼국지 이야기, 2008, p. 96.



〈그림 10〉 제갈무후도(부분),
왕의 글이 있는 그림,
2008, p. 25.

IV. 학창/학창의의 상징적 이미지

1. 신선; 세속을 벗어난 삶

학창의가 가지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신선(神仙), 세속을 벗어난 삶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지연의』에 묘사된 학창을 살펴보면, 제갈량

을 제외하고 학창을 입고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인 우길은 의술이 뛰어난 도인(道人)으로 영협이 대단하여 사람들이 신선이라 부르고 있다.⁵⁴⁾ 공명은 유비와 처음 만날 때 학창을 입고 윤건을 쓰고 등장하는데 표연한 풍신이 마치 신선 같았다고 묘사되고⁵⁵⁾, 이후 공명이 사마의를 속이기 위하여 위장했을 때 학창을 입고 잠관, 우선을 갖춘 모습은 은은하기가

마치 천신(天神)이 오는 것 같았다고 표현되었다⁵⁶⁾. 공명의 묘에 제사를 드린 종회의 꿈에 나타난 공명은 윤건을 쓰고 우선을 들고 학창을 입고 흰 신을 신고 검은 띠를 둘렀는데, 그 표일한 풍채는 신선이 하강한 듯했다고 하였다.⁵⁷⁾

『한수재집』에 실린 강석하(姜錫夏, 1644-?)의 묘표에는 오건(烏巾)과 학창의 차림으로 방에 들어앉아서 옛날 사람들을 벗삼을 만큼 뜻과 사상이 고고하였다[意想孤眞]는 묘사가 나타난다. 또한 철종 6(1855)년 연행 사신(燕行使臣)의 종사관(從事官) 서경순(徐慶淳)의 기록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중에는 중국의 문사 방소동(方小東), 이우선(李芋仙)이 와룡관에 학창의를 갖춘 상사(上使)를 보고 선풍도골(仙風道骨)이라 감탄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2. 제갈량; 지혜, 충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경 조선에서는 학창의를 제갈량의 복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학창의에서 제갈량을 연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갈량이 상징하는 바를 살펴보면 지혜와 충신의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은 탁월한 전략안목(戰略眼目), 비범한 담력(膽力)과 재간,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 바쳐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鞠躬盡瘁, 死而後已]는 분투정신 등을 지닌 인물로서 지혜의 화신(化身), 충정(忠貞)의 본보기, 현상(賢相)의 전형으로 묘사되었다.⁵⁸⁾ 그 중 특히 충신의 이미지를 조선 왕실에서 주목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평안도(平安道) 영유현(永柔縣) 제갈량의 사당은 임란 이후 선조(宣祖)의 명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혼종 때 중수하며 묘호를 와룡(臥龍)이라 내리고 비(碑)를 세웠다. 숙종 때에는 남송의 충신 악비(岳飛: 악무목)를 함께 제사하도록 하였으며, 영조 때에는 송말(宋末)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을 함께 모시도록 하고 어필로 쓴 편액을 내려 '삼충사(三忠祠)'라 하였다. 정조 때에는 숙종이 지은 '삼충도상찬(三忠圖像贊)'과 '삼충도상(三忠圖像)'을 사당에 봉안하도록 하였다.⁵⁹⁾

〈그림 10〉은 「삼충도상」 중 하나인 「제갈무후도」

로, 숙종은 찬문에서 제갈량을 '만세의 스승萬世之師'이라 칭하며 '윤건에 학창으로 縷巾鶴氅 / 선생의 풍모를 따르고 싶다 彷彿風儀'라 하여 복식을 통해 제갈량의 이미지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역대 왕들이 영유현 제갈량 사당에 승지 등을 직접 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제문을 짓거나 도상에 찬문 쓰는 등 관심을 가진 것은 신하들에게 제갈량의 충성심을 되새기도록 하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신하들도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북경 근교에 있는, 제갈량·악비·문천상을 모신 삼총사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소개하였다. 현지 사람들이 그 위치를 잘 모르거나, 별로 볼 것이 없다고 하여도 찾아가 배알하고, 사당이 황량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⁶⁰⁾ 충효를 중시하는 사대부들에게 있어 제갈량이 충성의 상징으로 이상화된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 18세기경 조선에서 착용한 학창의는 기존의 학설과 달리 창의와는 다른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창의는 선을 두르지 않고 뒤티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홍재전서』와 『연암집』에 기록된 사도세자, 연암, 유처일의 학창의와 창의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보아 두 복식의 차이점은 가선이나 뒤티임 유무만이 아니며, 학창의와 창의의 외형이 크게 달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 18세기 경 조선의 학창의는 깃이 직선형 혹은 방령으로 좌우 자락이 겹치지 않는 맞깃 형태이며, 깃·도련·소맷부리 등에 선을 두르고, 깃머리 부분에 단추나 작은 고름을 달아 여미기도 하였다. 대체로 중국의 학창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사대부들에게도 낯선 형태였으며, 학창의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과 교류가 있던 학자 등을 중심으로 착용되었고, 학창의를 착용했던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창의 착용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18세기 중엽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의 복식으로 와룡관·학창의 구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19세기 초 『만기요람』에는 통신사 정·부사의 복식으로 와룡관·학창의 백우선이 제시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분석결과 『삼국지연의』에 묘사된 제갈량의 차림새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제갈량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임진년 전후 조선 사회에서는 『삼국지연의』가 유행하여 어린이들도 외울 정도였다 하므로, 이를 통해 제갈량은 지혜와 충성의 상징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선조·현종·숙종·영조·정조 등 왕실에 의해 충신의 이미지가 강화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또한 임란 중 명(明)나라 군대와 함께 들어온 관제신앙(關帝信仰)을 바탕으로 건립된 관왕묘(關王廟) 및 제갈량의 사당 등에 봉안된 화상, 『삼국지연의』 도서 중의 삽화, 고사 관련 각종 회화 등을 통해 윤건·학창·우선으로 구성되는 제갈량 차림새에 대한 시각 자료도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앞에서 『삼국지연의』 중 제갈량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아닌, 원·명 교체기 명사의 모습을 바탕으로 나관중이 설정한 이미지일 것으로 추정한 것과 같이, 윤건·학창·우선의 차림을 일반적 사대부의 복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갈량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학창의, 특히 와룡관·학창의 구성은 제갈량의 모습을 모방하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창의에 대해 19세기 초상화와 전세유물을 바탕으로 대창의의 것, 소맷부리, 도련 등에 선을 두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17-18세기 경 학창의에 대한 태도와 착용 모습 분석을 통해 학창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벗어난 신선이나 도학자의 이미지에 머물렀던 학창의 착용 동기에 대한 해석을 제갈량을 중심으로 한 충신의 이미지에서 찾았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후속 연구에서는 맞깃형이었던 학창의가 직령교임형으로 변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연구가 그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인겸 (1764). 일동장유가. 최강현 역 (2007). 일동장유가. 서울: 보고사, p. 112.
- 2) 김지남, 김경문. 통문관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국역통문관지I.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302(八八)
- 3) 서영보, 심상규 (1808). 만기요람. 민족문화추진회(1971). 국역만기요람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603(二一九)
- 4) 김창업 (1713). 연행록선집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236-237(八一); 김경선 (1833). 연원직지. 민족문화추진회 (1977a). 국역연행록선집10.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417(一六二)
- 5) 서유구. 임원경제지. 서유구 (1983). 임원경제지2. 서울: 보경문화사, p. 431.
- 6) 유희경, 김문자 (2000).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39.
- 7) 이익. 성호사설. 민족문화추진회 (1977b). 국역성호사설 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19-20(三);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p. 241.
- 8) 윤미화 (1982). 창의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정희정 (2001). 조선후기 경복포에 관한 연구: 형태, 종류의 다양성이 주는 의미.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이민주 (2005). 옥소(玉所) 권섭(權燮)의 학창의에 관한 연구: 『옥소고(玉所稿)』소재 학창의 관계자료를 대상으로. 복식문화연구, 13(2), pp. 269-279.
- 11) 이은주 (2008). 『임하필기』의 복식 문화. 문학과 해석, 43, pp. 183-197.
- 12) 본 연구에서 '정사 삼국지'는 '삼국지'로 '소설 삼국지'는 '삼국지연의'로 표기한다.
- 13) 최신(崔愬, 1642~1708).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 송시열 문하에서 수학.
- 14) 송시열. 송자대전. 민족문화추진회 (1981). 국역송자대전 XI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236-237(一〇一~一〇二)
- 15) 권상하. 한수재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a). 국역한수재집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325(一〇五)
- 16) 송시열. 송자대전. 민족문화추진회 (1993). 한국문집총간112-송자대전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484.
- 17) 이의. 앞의 책. 민족문화추진회 (1977b). 앞의 책, pp. 19-20(三)
- 18) 김육 저. 김상수 역 (2007). 잠곡김육문중소장고문서: 실학박물관 기증기념 도록. 수원: 경기문화재단, p. 9.
- 19) 김육. 잠곡유고. 민족문화추진회 (1998a). 잠곡유고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60(三〇)
- 20)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1998). 문화재도록. 전라남도, p. 232.
- 21) 권섭. 옥소고. 이창희 외 편 (2007). 옥소고9. 서울: 다운샘, p. 296.
- 22) 위의 책, pp. 291-292.
- 23) 빙허각 이씨 (1809). 규합총서. 정양완 역 (2008). 규합총서. 파주: 보진재, p. 151.
- 24) 경상북도 (2003). 문화재대관V 경상북도, p. 461.

- 25) 영조(英祖)의 아들, 정조(正祖)의 아버지로 사후 영조가 사도(思悼)의 시호를 내렸으며, 정조 1(1777)년 장현(莊獻)세자로, 대한제국 광무 3(1899)년에는 장조(莊祖)로 추존되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도세자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 26) 정조, 흥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98b), 국역흥재전서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312(一三九), p. 355(一五八~一五九)
- 27) 박지원, 연암집, 신호열, 김명호 역 (2007), 연암집 상, 파주: 돌베개, pp. 269-257(487-488)
- 28) 박종채 (1826), 과정록, 김윤조 역 (1997), 역주 과정록, 서울: 태화사, pp. 137-141(336-338)
- 29) 이덕무, 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80), 국역청장관전서V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23-24(七)
- 30) 심백준·담량소 편, 정원기 외 역 (2000), 삼국지사전, 서울: 범우사, p. 473.
- 31)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14(재판4쇄), 서울: 두산동아, p. 279; 네이버 사전, 자료검색일 2010. 3. 19.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86074>; 국내최초 '삼국지연의' 나왔다. 한겨레2010. 1. 18. 자료검색일 2010. 3. 19. 자료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99673.html
- 32) 김만중, 서포만필, 흥인표 역 (1987), 서포만필, 서울: 일지사, pp. 384-385.
- 33) 이 분석에는 모종강본의 대역에 가까운 번역으로 평가되는 김구용 역(2002)의 『정본완역삼국지』, 서울: 술출판사를 사용하였고, 원문대조는 1971년 발행된 中國古典名著 第11卷 『三國演義』, 臺北: 三民書局을 이용하였다.
- 34) 번역본에는 '학창의'로 나오나, 원문을 살펴보면 '학창(鶴氅)'으로 기록되어있다. 앞서 17세기 조선에서 '학창의'와 '학창' 용어가 혼용되는 것을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중국 복식으로서 '학창' 용어를 살려 분석하기로 한다.
- 35) 김구용 역 (2002a), 정본완역삼국지2, 서울: 술출판사, pp. 294-296; 羅貫中 (1971), 中國古典名著 第11卷 三國演義, 臺北: 三民書局, p. 181.
- 36) 김구용 역 (2002b), 정본완역삼국지3, 서울: 술출판사, p. 127; 羅貫中 (1971), 위의 책, p. 235.
- 37) 김구용 역 (2002c), 정본완역삼국지6, 서울: 술출판사, p. 128; 羅貫中 (1971), 위의 책, p. 568.
- 38) 김구용 역 (2002c), 위의 책, pp. 350-353; 羅貫中 (1971), 위의 책, p. 638.
- 39) 김구용 역 (2002d), 정본완역삼국지4, 서울: 술출판사, p. 61; 김구용 역 (2002c), 위의 책, p. 80, p. 161, p. 177, p. 288, p. 294; 羅貫中 (1971), 위의 책, p. 321, p. 553, p. 579, p. 584, p. 601, p. 620.
- 40) 김구용 역 (2002e), 정본완역삼국지7, 서울: 술출판사, p. 54, pp. 304-305; 羅貫中 (1971), 위의 책, p. 664, pp. 738-739.
- 41) 김구용 역 (2002e), 위의 책, pp. 282-284; 羅貫中 (1971), 위의 책, p. 732.
- 42) 이전원, 이소선 저, 손경숙, 김진철 역 (1997), 삼국지 고증학 1, 서울: 도서출판 청양, pp. 177-184.
- 43) 이전원, 이소선 저, 손경숙, 김진철 역 (1997), 위의 책, p. 179; 심백준, 담량소 편, 정원기 외 역 (2000), 앞의 책, p. 503.
- 44) 김원중 역 (1994), 정사 삼국지 제5권 출판, 서울: 신원문화사.
- 45) 정원기 역 (2000), 삼국지평화, 서울: 도서출판청양.
- 46) 成都武侯祠 자료검색일 2010. 1. 13. 자료출처 <http://www.wuhouci.net.cn/PhotoShow.asp?TypeClass=Photo&PhotoID=12>
- 47) 서성 (2010), 삼국지, 그림으로 만나다, 서울: 천지인, p. 164.
- 48) 위의 책, p. 497.
- 49) 편자미상(편년미상), 중국역사회모본[支那歷史繪模本], p. 40; 서울역사박물관 (2008), 우리의 삼국지 이야기,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pp. 28-29.
- 50) 서울역사박물관 (2008), 위의 책, p. 92, p. 96.
- 51)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편 (2008), 왕의 글이 있는 그림: 御製,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 25.
- 5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8), 숙종실록15,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 44-45(八)
- 53)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편 (2008), 앞의 책, p. 24.
- 54) 김구용 역 (2002a), 앞의 책, pp. 294-296; 羅貫中 (1971), 앞의 책, p. 181.
- 55) 김구용 역 (2002b), 앞의 책, p. 127; 羅貫中 (1971), 위의 책, p. 235.
- 56) 김구용 역 (2002c), 앞의 책, pp. 350-353; 羅貫中 (1971), 위의 책, p. 638.
- 57) 김구용 역 (2002e), 앞의 책, pp. 282-284; 羅貫中 (1971), 위의 책, p. 732.
- 58) 심백준, 담량소 편, 정원기 외 역 (2000), 앞의 책, p. 473.
- 59) 민족문화추진회 (1989), 신증동국여지승람6, 서울: 민문고, p. 480; 민족문화추진회 (1967), 국역 연례실기술IX,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58(631); 민족문화추진회 (1991b), 현종개수실록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29(二六); 민족문화추진회 (1992), 현종개수실록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37(八);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8), 앞의 책, pp. 44-45(八);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영조실록23,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37(七); 민족문화추진회 (1995), 국역국조보감V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187-188(八八);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3), 정조실록1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168(三三), p. 195(三九).
- 60) 최덕중 (1713), 연행록, 민족문화추진회 (1976b), 국역 연행록선집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66(九五); 김창업 (1713), 앞의 책, 민족문화추진회 (1976a), 앞의 책, pp. 236-237(八一); 홍대용, 담현서,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담현서IV,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p. 34(四); 김경선 (1833), 앞의 책, 민족문화추진회 (1977a), 앞의 책, p. 417(一六二).